

광주비엔날레 정체성 정립 안간힘

'신정아 사건' 실추된 위상 되찾기...개혁 작업 시동 오늘 토론회, 총감독 선임·재단 운영 방안 등 논의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위상이 크게 실추된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이 정체성 정립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기 위해 총감독 선임방식, 재단 운영의 효율화, 지역 사회와의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가짜박사 신씨를 걸러내지 못하고 예술감독으로 선임한 재단의 검증시스템 부재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재단은 15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 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해 비엔날레 운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엔날레의 총감독 선임방식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개혁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총감독 선정방식 및 재단 연구기획 기능강화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계원조형에 술대과 이영철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재단 이사들로 주

단일화 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인 문화 CEO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자장은 이사회 수장으로서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결권과 상징적인 대표성을 갖고 문화 CEO가 인사·예산·사업의 자율권을 부여받아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공무원이 과견되는 사무처장직도 전문인으로 대체하고, 부시장이 맡는 상임부이사장 역할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官)의 역할을 축소할 경우 예산 및 후임금 확보에 차질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비엔날레의 '색깔'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갈수록 저열해져가는 타 비엔날레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광주비엔날레를 미술·디자인·건축·공연·영화 등 5개 분야를 망라한 총체적인 예술 축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예술·문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비엔날레-미술축제는 인식의 일반적인 데다 5개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비엔날레의 본질이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현실화 되기 까지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흙먼지 휘날리는 대추리의 고통과 상처

광주신세계 갤러리

15~23일 박영균 초대전

광주신세계 갤러리가 '제8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박영균 초대전'을 15~23일까지 연다.

'빨강 풍경과 노랑 풍경을 지나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미군 부대 기지 확장으로 흙먼지 휘날리는 공사현장으로 변해버린 경기도 평택 대추리의 일상을 담은 박영균의 회화, 영상 등 13점이 선보인다. 또 대추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다양한 사진 자료도 전시된다.

주제 작품인 '빨강 풍경과 노랑 풍경을 지나서'는 대추리교가 부서지는 '빨



박영균작 '빨강 풍경과 노랑 풍경을 지나서'

강 풍경' 옆으로 대추리 평화공원의 아름다운 '노랑 풍경'이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진다.

또 카우보이 인형인 '앤디' 시리즈를 통해 대추리의 고통과 상처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영상물 '들 사람들'은 대추리 현장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벌인 모습을 담았다.

경희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박영균은 '2007 soul갤러리'(북경),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광화문), '로봇 전'(광주시립미술관분관) 등의 전시회를 가졌으며, 지난 2005년 제8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교대 졸업생 뽀새바람전

18~22일까지 무등갤러리

해맑은 동심과 매일 생활하는 교사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풍경일까?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졸업생들의 모임인 뽀새바람회가 18~22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제7회 뽀새바람전'을 연다.

'휴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2명의 교사들이 틈틈이 그려온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양 '가을' 최정훈 '섬'은 교정 등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토드로잉회 선의 형상들전

15~21일까지 무등갤러리

수토드로잉회는 15~21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구관)에서 열 번째 전시회인 '선의 형상들'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평면 형태의 드로잉이 아닌 철사, 테라코타 등 조각 재료를 이용해 선이 살아있는 입체적인 드로잉 작품을 선보인다. 송일석·이선희·김윤영·오창록·강상규·문철희 등 9명의 작가가 개성이 묻어나는 30여 점을 전시한다. 문의 062-228-66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갤러리 문 연다

백남준씨 작품 등 역대 출품작 상설 전시 작가들 개인전도 개최...지역 문화계 후원



백남준작 '고인돌'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등 역대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연중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최근 비엔날레관 제5전시실에 상설홍보자료관을 신설, 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이 기증했던 8점을 전시하기로 했다. 또 홍보관 내에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작가들의 개인전을 후원하는 등 비엔날레와 지역 문화계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14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3월 개관을 목표로 최근 상설홍보자료관 공간 구성과 연출을 맡을 업체로 (주)미드를 선정해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며 "역대 기증 작품과 수상작, 2만 컷의 작품 이미지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엔날레 제5전시실(1천566㎡)에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홍보관은 크게 재단 홍보 공간과 ▲기획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을 갖춘 부대시설로 꾸며진다.

재단 홍보 공간에는 1~6회 대회의 대표 이미지가 전시되며 상설 기념품 숍도 운영된다. 그동안 공간이 마땅찮아 전시를 하지 못했던 비엔날레 기증 작품들도 이곳에 새 동지를 틀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 1995년 제1회 비

엔날레에서 맥주병과 조각배를 통해 억압된 정치 상황을 표현해 대상을 차지한 쿠바의 알렉시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와 故 백남준씨의 '고인돌'이 전시된다.

이밖에 에릭의 '블라토프', 손봉체의 '불수 없는 구역', 쉬린 네사의 '무제', 아틀리에 바우와우의 '민화방', 임옥상의 '차나 한 잔 합시다', 지티쉬 갈라트의 '컨디션 어플라이' 등도 선보인다.

'고인돌'은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아르코(ARCO) 2007 백남준전'에 대어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디오 아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족 뮤지컬 '피노키오' 무대

꼬까아동극단 19~20일 서구문화센터

꼬까아동극단이 가족 뮤지컬 '피노키오' 무대에 올린다. 18일 단체, 19~20일 낮12시, 오후 2시·4시 광주서구문화센터.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원작을 뮤지컬로 만든 '피노키오'는 동화 속 한 페이지 같은 무대 세트와 아름다운 의상, 클래식 음악을 가미한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조각가 제페트 할아버지는 정성을 들여 나무토막으로 인형을 깎기 시작한다. 비록 나무 토막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하고 '피노키오'라는 이름도 지어준다. 어느날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걸 발견한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학교에도 보내며 친 아들이처럼 키우지만 피노키오는 말성을 피우기 시작한다. 문의 062-952-878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기 남도일보 논설실장

'남도 현대 시문학...' 책 펴내

한국 근현대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광주·전남출신 시인 28명의 등단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김선기(47) 남도일보 논설실장은 최근 김영랑·김남주 등 지역 출신 시인들의 시를 한

데 모은 '남도 현대 시문학의 산책'(전남대 출판부 판·사진)을 펴냈다.

이 책은 '남도 현대시문학사' '빛나는 남도의 눈물' '황토 위에 역사를 새기다' '사직공원 시비 숲을 거닐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문병란·김지하·김준태·황지우·곽재구 등 28명의 시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등단작 및 대표작들이 실려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p>메가박스 구.런던악사거리 ☎06154-0600</p> <p>1관 무방비도시 (15세) 최고급관 2관 미스트 (15세) 3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4관 P.S 아이러브유 (15세) 5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8관 색즉시공2 (18세)/꿀벌대소동(전제) 9관 가면 (18세)/더 재킷 (15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위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제)/황금나침반 (전제) 2관 색즉시공2(18세)/내셔널트러져 (12세) 3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4관 아이러브유 (15세)/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무방비도시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해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삼우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제)/나는 전설이다 (12세) 2관 알리쉬퍼드 (전제)/30데이즈 오브 나이트 (18세) 3관 무방비 도시 (15세) 4관 무방비 도시 (15세) 5관 내셔널트러져 (12세)/더 재킷 (15세) 6관 꿀벌대소동 (전제)/내셔널트러져 (12세) 7관 기다리다 미쳐 (15세)/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2세) 8관 마법에 걸린 사랑(전제)/미스트 (15세) 9관 황금나침반 (전제)/P.S.01 아이러브유 (15세) 10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12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달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클래스박스 (10시) 잠깐의 상영중 (11시~12시)~연</p>	<p>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511-1000</p> <p>1관 꿀벌대소동 (전제)/어거스터쉬 (전제) 2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P.S.01 아이러브유 (15세)/내셔널트러져 (12세) 5관 미스트 (15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 7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제)</p> <p>*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사 사무(오전9시~오후8시)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p> <p>1관 내셔널트러져 (12세)/제대(전제) (18세) 2관 미스트 (15세)/나는 전설이다 (12세) 3관 무방비도시 (15세) 4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5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15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꿀벌대소동 (전제)/색즉시공2 (18세) 8관 P.S. 아이러브유 (15세) 9관 황금나침반 (전제)/더 재킷 (15세)</p> <p>*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평일상영을 위한 전용휴가미션 *전환예매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무방비도시 (15세) 2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5세) 3관 마법에 걸린 사랑 (전제) 4관 색즉시공2 (18세)/가다리다 미쳐 (15세) 5관 내셔널트러져 (12세)/아이러브유 (12세) 6관 황금나침반 (전제)/나는 전설이다 (12세)</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